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자원

하재성*

국문초록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는 곧 피해자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영적 폭행”이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그 어떤 사후 수습보다 목회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효과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위험한 징후들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자원임을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을 통해 밝힐 것이다. 첫째, 목회자의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건강한 자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는 억압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개방적인 태도는 혼란을 일으키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성적 탈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둘째,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상황의 해석은 곧 권력 구조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인간의 불법적인 성은 한 개인의 권력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적탈선의 예방을 위해 자신의 성적 감정과 같은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고 실현을 방해해야 한다. 끝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난에 의미를 주며, 가해자는 진실을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

중심단어 : 목회자의 성, 성폭력, 권력, 신학교육, 피해자

• 논문 투고일: 2012년 10월 11일

• 논문 수정일: 2012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6일

*고려신학대학원

www.kci.go.kr

I. 여는 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평신도 한 사람의 탈선보다 훨씬 크고 깊은 상처와 파장을 남긴다. 이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맡겨진 양떼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적 탈선은 피해자에 대한 “영적 폭행”(spiritual assault)이다. “왜냐하면 [성 폭행은] 그 피해자의 존엄성, 정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사회 문제화 되면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함과 능력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은 지도자들의 범죄 앞에서 하찮고 일관성 없는 종교적 가르침의 하나로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과 그들의 가정 및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적 탈선 예방의 자원은 역시 신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신학교육의 과정에서부터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회자로서의 건전한 자기 성찰과 직분에 맞는 자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목회자를 형성하고 교육시키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 신학 교육이다. 물론 많은 성적 탈선이 신학교육 기간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회자의 목회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는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 탈선에 대한 예방 교육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성에 관한 이원론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금욕주의 등 중세기적 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강박관념들을 경계하도록 깨우쳐야 한다.

1) Pamela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es Respons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77.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고가 그 정반대편에 있는 탈선과 약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아울러 신학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죄와 용서의 구조가 약탈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성격장애의 관점에서 는 그것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용이한 수단이 된다. 성적 범죄의 심각성과 용서의 신중성, 그리고 목회자가 “권위자”로서 범한 죄의 권력 역동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교육은 목회자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의하고, 가시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끊임없이 이 경계선에서 서성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과 경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기 발견을 위한 성격검사와 그에 따른 목회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학생 당시의 개인적인 상담을 경험함으로써 목회자는 보다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오래된 자신의 상처나 약점을 함께 다루어, 가해자나 약탈자가 아닌 치료자의 역할을 평생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은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적 자원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목회자가 가져야 할 성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성이 어떻게 목회적 권력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지 성찰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전을 성찰하고, 희생자들의 고통에 우선 귀를 기울임으로써 목회자가 자기 성찰을 통해 성적 탈선을 극복하게 하는 자원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II. 펴는 글

1. 건강한 성의 신학

성이란 우리의 자아의 일부이며 삶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평생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성적인 존재로 자라가고, 자기 인식을 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성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경험되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을 하게하고, 이로써 그 성직자 부부의 성적 표현과 만족을 방해하게 된다.”²⁾ 자신의 성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자칫 성욕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을 불러 일으키고, “성적인 방탕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성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게 된다.”³⁾

이처럼 성에 관한 조그만 죄의식에도 당황스러워하는 도덕적인 절대주의의 철학과 신학교육은 오랫동안 기독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절대주의의 뿌리는 기독교 안에서 깊고 오래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적 존재로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 몸을 비하하거나 방치 내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왔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기독교적 금욕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출범하던 시기에 편만했던 그리스-로마 철학의 근간인 스토아주의의 “열정의 정복”(the conquest of the passion)이라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구

2)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1), 683.

3) Hunter, *DPCC*, 683.

원은 은둔자적 감정인 무정(apathy) 평온(tranquility)의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성적 욕구는 건강하거나 성숙한 인간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성적 쾌락을 동물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오직 자손의 출생을 위해 부부가 성 관계를 갖는 것 외에는, 용서받을 만하지만 여전히 죄로 여겼다.⁴⁾ 그러나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적 욕구를 억누를 때 중세와 그 이후에 초차 많은 탈선의 사건들이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가진 금욕주의적 태도는 이후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스토아 철학의 산물이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육체적, 성적 필요의 중요성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명한 설교자 John Chrysostom은 자신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가치는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도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상으로 결혼한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부름 받은 자임과 동시에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신학적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사역과 목양 사역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

4)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95-323.

5) Calvin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언급 “utor non frui” 즉 “사용은 하되 즐겨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척하였다. 그는 인간의 성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여, 즐기도록 주신 것에 대해 즐거움을 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인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재성, “인간의 성,” 303-306.

6) John Chrysostom, “Homily 7 on Hebrews,” in Vigen Guroian, “Family and Christian Virtue in a Post-Christian World: Reflections on the Ecclesial Vision of John Chrysostom,” *Touchstone* (Spring 1993). <http://www.touchstonemag.com/archives/article.php?id=06-02-007-f>

의 삶과 통합적으로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두 영역 모두 건강하고 인격적이어야 하며, 목회 사역과 성적 존재로서의 결혼 생활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사역의 열정과 보람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부부생활의 친밀감과 사랑이 목회 사역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필요를 과도하게 수치스러워하거나 거룩한 말씀 사역에 조화시킬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부끄럽게 여긴다면 목회 사역과 목회자 자신은 이원론적으로 괴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괴리가 외면적으로는 금욕주의적 메시지나 극단적인 청결의식으로 나타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모습, 즉 성적 쾌락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비 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강박적 방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실제로 매우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설교하던 한 목회자는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고 사역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혹은 북한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건을 위해 자신의 성기를 훼손한 목회자도 있었다. 당시에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남한에서 재혼한 목회자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 큰 죄책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도 80세가 넘어 이상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후에는 20세가 채 되지도 않은 여성과 다시 결혼하였다. 극단적인 금욕의 입장을 취하면서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 혹은 타인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사역자들은 외려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성은 결코 목회자의 삶이나 가정에서 괴리되거나 소외되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상통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⁷⁾ 그것은 “일 주일에 혹은 일생에 몇 번의 오르가즘을 누려야

7) Mark D. Jordan, *The Ethics of Sex: New Dimensions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002), 340.

하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정도, 양심의 요구,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성적 욕구는 만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⁸⁾

목회자의 삶에서도 성적인 만족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과 성적인 만족을 괴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려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기도를 핑계로 부부가 잠시 별거하는 것 외에는 다시 합쳐야 하는 것은⁹⁾ 목회자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단순히 몇 번의 성적 쾌락을 더 얻을 것인가에 성적 존재로서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의 인격적인 상호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사역하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만족은 일관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양심을 거스르는 포르노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도구들에 의존하는 것은 목회자 부부의 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성적 경험에 있어서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불량한 언어, 쾌락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둔 이기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배우자의 사정이나 형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된 성을 추구하게 된다.

성이란 부부 사이에 서로가 교감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배타적이고 순수한 동기 가운데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서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 부부는 자기 배우자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쾌락이 아닌 배우자를 우선 존중하는 인격적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이란 성적 행위로만 고립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앎”을 통해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더 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의 배우자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분별

8) Jordan, *The Ethics of Sex*, 340.

9) 고린도전서 7:5.

력 있는 성적 교감을 조절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¹⁰⁾

2. 실천신학을 통한 권력 구조 이해

프린스턴 신학교의 목회 신학자 Donald Capps는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자들이 평신도의 고통을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성적인 관계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는 평신도와 함께 한다는 뜻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고통 당하고 외로운 평신도의 위치로 내려가서 함께 육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목회적 동기에서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정말 긍휼과 공감의 충만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이단의 괴수들이 낮아짐과 동등됨을 나눈다는 뜻으로 성적 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러나 목회적 권위와 말씀 전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방식대로의 영혼 돌봄”을 실행할 때, 그것은 곧 취약한 영혼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 결국 목회자가 스스로 용납할 만한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극히 잘못된 나눔과 돌봄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취약하고 상처 입은 평신도는 더욱 의존적이고 병든 영혼이 될 것이다. 반대로 목회자 자신의 권력은 그 평신도 개인에게 훨씬 파괴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가리켜 Capps 는 “목회적 권력의 모순”(the paradox of pastoral power) 이라고 명명하였다.¹¹⁾

10) Eugene Peterson은 구약성경에서 성의 의미가 “뺨”이라고 설명하면서, 얇이 있는 곳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영역이 있으며 무지와 신비의 영역이 있으므로, 이는 부부가 평생을 서로 알아가는 신적인 도구임을 말하고 있다. Eugene Peterson,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50. 하계성 “인간의 성,” 314 에서 재인용.

11) Donald Capps, “Sex in the Parish: Social-Scientific Explanations for Why it Occurs,” *Journal of Pastoral Care* 47, no. 4(1993): 356-57.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Don Browning과 같은 윤리학자 및 목회신학자나 밴더빌트 대학교의 Edward Farley와 같은 학자들은 실천신학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¹²⁾ 그 중 Farley는 실천적 해석학에 있어서 사역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과 상황에 대한 분석적인 방법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위에서 Capps가 말한 상황이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목회적인 환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천의 과정에서 목회자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비윤리적인 행동 하나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했을 때 결과는 목회적인 것과는 정반대인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이렇게 상반된 목회자 권력의 양면성을 인지하는 것이 미래 일어날법한 성적 위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교육으로 이 같은 현장의 상황에 경험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교묘한 실천적 왜곡을 분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하다. 말 그대로 자신은 예수님의 용납을 받은 죄인이요, 자신에게 회개와 정의를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구조가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성경 사용에 익숙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탐욕과 사단적 동기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성경적 명분만으로는 선명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가해자들의 영적인 자기 합리화와 자기중심적 신학의 남용은 진실을 감추고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해자들에게 합리화

12) 하재성, "The Revised Correlational Method of Don Browning and Edward Farley: a Comparative Essay on the Interpretation of Situation,"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203-224.

라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투영해 볼 수 있다면 가해자들에 의한 용의주도한 신학의 남용내지 피해자의 2, 3차 영적인 피해를 예방함에 있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경험의 해석에 있어서 실천신학적 방법론의 공백(lacuna)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Farley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추행위' (the reflective activity of the believer)와 '상황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situationality)을 요청한다. 그 상황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포함된 권력 구조의 이해와 분석이다.¹³⁾ Farley는 지적하기를 인간의 상황은 범죄로 인한 "타락(corruption)과 구속(redemption)"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통적 신학의 틀을 가지고서도 인간이 가진 "우상, 자기 이익의 절대화, 자기 인종 중심주의,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참여"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⁴⁾ 그리고 실천적 해석을 위하여 "자기-의식적(self-conscious), 자기-비판적(self-critical), 그리고 규율적인(disciplined)" 상황해석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Farley는 실천신학에 있어서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성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성적 쾌락을 얻는 것보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탈하려는 권력 추구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강간이란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공격하는 폭력적 범죄이다."¹⁵⁾ 특히 연약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성을 매개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그것이 완력이든 사회문화적인 남성의 힘이든, 아니면 거꾸로 나이 든 여성에 의한 어린 남

13) 하재성, "The Revised Correlational Method," 208-210.

14) Edward Farley, "Interpreting Situations: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Practical Theology," in *Formation and Reflection: The Promise of Practical Theology*, eds. L. S. Mudge & J. N. Poling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2009), 14.
하재성, "The Revised Correlational Method," 215에서 재인용.

15) Hunter, *DPCC*, 1040.

자 아이에 대한 나이 권력이든, 어떤 종류든 그 권력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강간이다. 그러므로 “강간은 폭력적인 죄이며, 오만함과 절망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¹⁶⁾

이런 실천신학적 방법론으로 볼 때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성적 탈선에는 반드시 권력의 남용(power abuse)이 개입되어 있다. 그 권력의 작용에 대해 목회자는 실천신학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 하더라도 성적 탈선에 있어서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 평신도를 이용하게 된다. 힘의 불균형이 사회적, 경제적, 성별이나 나이의 차이에서 이루어진다면,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성적 탈선은 100% 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 실상 그 권위는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치유하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영적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상위의 권력을 악용하여 평신도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평신도의 성적 결정권은 교묘히 침해당할 수 있다. 영적인 봉사란 이름을 내세워 평신도를 약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막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성폭행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권력자인 목회자에 의해 수없는 권리의 침해를 당한 이후이다. 그런 후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당 목회자를 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력을 상실한 목회 권력은 결국 많은 기독교 여성들을 약탈해 왔다. 그런 권력은 피해 여성들의 고통스런 경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진실을 침묵시키며 자기 권력의 유지를 가속화해 왔다. 문제는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숫자와 그들의 고통을 깊어질 수밖에 없다.

16) Jordan, *The Ethics of Sex*, 137.

목회자의 성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목회자 후보생들은 목회 현장에서 성적 문제가 결코 아름다운 로맨스나 영혼을 돌보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남용되고 악용될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일 목회자에게 권력에 대한 자각과 권력 사용의 역동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기독교적인 자원이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의 지평은 개별적인 것 이상으로 구조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관점에서는 성폭력이 피해자들을 피학적으로 만족시켜 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작업의 흔적일 뿐이다. 이런 구조적 통념이 목회자의 성적탈선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인 목회자보다 피해자인 평신도가 더 비난받는 형태로 반복되어 왔다.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문화는 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투시함으로써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조장 내지 방조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분별, 비판,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심리적 역전이 이해와 목회자의 자기 성찰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과연 예방 가능한가? 윤리학자 Rebecah Miles는 단언하기를 “성적 탈선의 행위는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성직자가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깨어 있을 때 이다.”¹⁷⁾ 특히 성적 탈선과 관련하여 목회자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선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명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Rebecah L. Miles,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 Fortress Press, 1999), 107-108.

이를 위해 우선 “어떤 행동이 성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성 범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definitions)가 법과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¹⁸⁾ 무엇보다도 성적 범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하고 양떼를 약탈하는 비도덕적이고 반목회적인 행위이므로 강력하면서도 명문화된 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적 범죄를 구성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연구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목회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이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 올려,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환상적 욕구가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이성의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에게 이성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알아 달라는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자신의 사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담자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이며, 환자가 일으키는 전이(transference) 감정에 대한 상담자의 응답으로서, 과장될 정도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반응을 가리킨다.¹⁹⁾ 이런 전이-역전이의 대면 상황은 목회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과 같은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은 건강한 목회를 위해 “아니오!”를 구사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서로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성의 유혹과 그에 따른 상호간의 환상에 대해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역전이의 실현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는 프로이트 당시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났으며, 프로이트는 그와 같은 분석가들의 미성숙함

18)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75.

19)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67-293.

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리고 대상관계이론가의 한 사람인 Donald W. Winnicott은 환자의 필요(needs)를 채워주는 것과 본능적 욕구를 달래는 것을 구별한다. 치료자가 역전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식이 부재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생기는 역전이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역전이의 감정을 성도들에게 공개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미성숙한 일이다. 상대방의 전이적 감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삶의 기억에 의해 생성된 것이든 역전이의 감정은 목회자의 내면에서 인식되고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의 성적 탈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전이적 증상 행동들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이성에 대한 꿈이나 심방을 가기 전에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형태로 둘 만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합의되지 않은 심방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상담에 할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성도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성적 타락을 정죄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역전이적 관심을 노출시키는 일일 뿐이다.²⁰⁾

특히 다른 죄보다도 음행 죄는 좀 더 큼니다. 다른 죄는 모두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만은 자기 몸으로 짓는 죄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거기다가 자손까지 죽이는 삼박자로 망할 짓입니다...여자들이 몸 빼앗기고 빈 병 신세 되지 마십시오. 빈병 되면 영장수 밖에는 갈 데가

20)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276-277.

없습니다. 왜 남자들이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따지 않은 콜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남자의 평균 섹스 대상이 17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이 정도이니 소위 플레이보이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²¹⁾

위의 설교는 음행의 죄에 대한 선명하고 회화적이기까지 한 경고의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설교자는 심판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몰입하게 하는 흥미로운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설교자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고, 성에 대한 수치스런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남자들과 플레이보이들에 대한 설교자의 질문 속에는 자신의 관심이 매우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탁월한 설교의 한 부분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설교와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와 같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의식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성도의 관계는 위협당할 가능성이 크다. 혹시 목회자에게 채워지지 않은 다양한 결핍들이 있다면 이런 관계에서 성도의 필요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 채우기 위해 비윤리적인 선택을 감행하게 된다. 목회자는 결코 성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치유 받으려 해서 안된다. 그 어떤 경우이든 목회자는 자신의 역전적 감정이 돌봄의 관계에서 집착이나 권력남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설교나 심방, 대화나 강의를 통해 목회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와 말씀의 자원으로 끊임없

21) <http://cafe.daum.net/bgtopia/73AA>. 이것은 음행의 죄에 대한 J 목사의 설교의 일부이다.

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역전이적 욕구들을 인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 내면에 흐르는 감정들을 언어화시키고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전이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현실 관계에서 활성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적 필요를 확인하고, 긍정하되, 영적 자원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과 사역을 보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신뢰할 만한 멘토나 슈퍼바이저를 통해 특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필요들을 함께 탐색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목회자의 배우자는 가장 가깝고 유익한 멘토가 될 수 있다. 목회자인 남편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정직한 시각으로 남편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설교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역전이적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경계하는 데 유익하다.

그와 함께 목회자는 목회자 후보생이나 신학생일 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나 상담을 일부러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드러난 특별한 결핍이나 심리적 필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결핍들이 승화(sublimation)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친구들과의 상호성찰을 통해 이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들을 충분히 점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목회자의 자기 인식과 자기 감독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평생의 성장의 과정이다.

4. 피해자 및 희생자들을 우선 돌보는 신학

사실 기독교는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거나 위로하는 예식이 불교나 무교, 심지어 천주교에 비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물론 기독교의

신학이 죽은 자를 위로하거나 그들의 한을 달래는 것과 같은 의식들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의 문제는 예식의 결핍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피해자 내지 희생자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해자가 목회자와 같은 직위에 있는 권위자일수록 그 사건을 둘러싼 진실은 가해자의 관점으로 진술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 혹은 피해자 자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여자 연예인들을 권력자들을 위한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보도되었지만 진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권력이 개입된 진실게임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고통스런 폭력의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가해자와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신학을 통해 사죄와 용서의 과정을 명시해 오면서도 피해자의 원한을 경청하고 정의와 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심을 쏟지 못했다. 물론 성경에서 피해자들의 원통하심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서나 그들이 받아야 할 관심에 대해 신학은 거의 침묵해 왔다. 다소 단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적 성향에 대해 재미 신학자 Andrew S. Park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죄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곧 거의 죄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죄인들/압제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어서 희생자들에게는 거의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죄인/압제자 중심적인 사고는 기독교 신학이 죄와 구속의 교리들을 주형해 온 바로 그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지도를 제시

해 왔으나 동시에 압제받는 자들, 곧 죄인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²²⁾

물론 이렇게 발생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담치료를 받도록 도운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Park은 피해자에 대한 신학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의미부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담치료 자체는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치료의 과정이지만 피해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수납하며, 그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Park은 여성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남성 및 가해자 위주의 전통적 기독교의 신학적 죄/용서 구조가 여성들의 희생을 보편적으로 전달해 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압제 당하는 고아와 과부의 원한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복음으로 인해 핍박 받은 자들을 위한 신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신학이나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신학의 초점이 편중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Park은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해 온 한 여성의 수기를 통해 피해자 내지 희생자의 내적 역동과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다.²³⁾ 그 여성은 매우 어릴 때부터 아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 왔다. 너무 자주 그 일은 반복되었고, 그 여성은 지속적으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오랜 세월동안 그 일이 깊어지고 반복되면서 그녀는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그 과정에 경험하는 최악의 감정은 죄책감과 무기력감(powerless)이었다.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다. 아버지라는 관계와 지위가 그녀로 하여금 저

22) Andrew S.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TN.: Abingdon, 1993), 72-73.

23)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28-29.

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권력(power)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는 죄책감이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어서도 그녀는 늘 울적하고 불행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전혀 피해자인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 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오빠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느꼈다. 가족 안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신뢰에 배신을 당할 때에도 자신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한 가족들을 자신은 배신하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켜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의 분노와 근친상간의 현실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기에는 가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 이전에 피해자가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이처럼 깊은 죄책감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거나 신음함으로 표현되는 것이다.”²⁴⁾ 복음주의적 상담은 일차적으로 이런 울부짖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나누거나 가해자의 불의한 행동을 증언함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할 것이다. 이런 지지는 상담자와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소통되어야 한다.

성적 탈선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교회 ‘가족’ 과 근친상간하는 예는 명백하며 근친상간과 비슷하게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²⁵⁾ 목회신학자 Carrie Doehring의 지적대로 “남성 목사는 종종 아버지 상으로 비춰진다.” 비록 목회자와 성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강제적

24)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24.

25)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129.

인 성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²⁶⁾

목회자에 의한 근친상간적 약탈의 사건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신앙을 잃고 수치심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고립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더구나 목회자를 신실하게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생자가 외려 유희하는 자이며 가해자라고 취급하기 십상이다. 1차적인 성 추행 뿐만 아니라 2, 3차의 상처를 입기 쉬운 것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예식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지라도 목회자 성적 탈선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이 설 곳을 허락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허락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성 범죄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접수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명민하고 잘 훈련된 권의 옹호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고 지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²⁷⁾ 침묵을 깨트리고 외형과 내면의 진실을 토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죄책감과 고통을 치료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안전한 처소를 박탈해버리는 아버지와 같이 성적 탈선을 감행하는 목회자는 피해 성도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으로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신학과 그들을 치유하는 침묵 깨뜨리기를 통해 가해자이자 목회자인 “사랑하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한다.²⁸⁾ 그리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과 정의로운 신학, 그

26) Carrie Doehring,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 Postmodern Approach*, 오오현 · 정호영 공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근대적 접근법』 (서울: 학지사, 2012), 114.

27)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76.

28) 피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진실이 드러날 경우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찰된다는 사실을 알 때 흔히 그런 가해적 행동은 일시적이거나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Len Hedges-Goettl, *Sexual Abuse: Pastoral Respons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42.

리고 피해자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이 모순 없이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치료이며 정의이다. 또한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공동체에 희생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치료하는 영적 자원이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신학 교육은 미래 목회자들의 사역을 형성하는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은 중요한 과정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 신학교육의 과정에서 목회자의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인간의 영적 가치를 공격하는 심각한 공격이므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목회자는 자신의 성을 자기 삶과 사역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논의하였다.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의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성욕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은 외려 성적 방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몸의 필요를 무시할 때 건전하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탐욕의 습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역자는 인격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적 필요를 적절하게 소통하고, 사역자로서의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회피하지 않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목회자의 사역은 이같이 조화로운 자기 정체성과 견고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회자는 신학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떤 것이

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목회적인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눈 먼 권력이 되면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더 깊은 불신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 권위가 눈 먼 권력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권력의 역동을 이해하고, 권력의 왜곡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자원 이외에도 권력 남용을 분별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에 대한 목회자의 성 희롱이나 성폭력은 권력의 남용이며, 아무리 쌍방간의 인격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평등한 계약관계일 수 없음을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은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적 불평등에 대한 문화적 인식 역시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특히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인식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훈련의 요소임을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판적으로 반추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과 마찬가지로, 목회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역전이적 감정은 억누르거나 부인하지 않고 우선 있는 그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이성의 유혹에 따른 상호간의 환상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역전이적 감정의 현실적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비전문적이며 비윤리적이다. 목회자나 후보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역전이적 감정의 증상을 인지하고, 자기 감정의 필요들을 탐색하며, 결핍들이 때로 다양한 영적 자원을 통해 실현이 아닌 승화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신학교육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이 전통적으로 보여 준 약점, 즉 피해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목회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무고한 많은

여성들과 어린 아동들이 무자비한 목회자들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이런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진실은 끊임없이 저항받고 위협받는다. 특별히 가해자의 죄에 대한 용서에는 정해진 사죄와 구원의 길이 교리적으로도 선명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교회를 당황스럽게 하고, 교회의 항상성을 위협하므로 쉽게 타협되거나 침묵으로 누르도록 강요받는다. 결국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며, 심지어 동료 교인들로부터 2, 3차의 심리적 고통을 당하기 쉬운 것이 목회자 성적 탈선의 희생자들이다. 따라서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이 믿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편에 있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암시하듯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양한 관계나 자원의 결핍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담대하게 범죄하는 목회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학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자원들을 통해 예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목회적 권력을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약탈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고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의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67-294.
- 하재성. “The Revised Correlational Method of Don Browning and Edward Farley: a Comparative Essay on the Interpretation of Situation.”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203-224.
-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95-323.
- Capps, Donald. “Sex in the Parish: Social-Scientific Explanations for Why it Occurs.” *Journal of Pastoral Care* 47, no. 4(1993).
- Chrysostom, John. “Homily 7 on Hebrews.” In Vigen Guroian, “Family and Christian Virtue in a Post-Christian World: Reflections on the Ecclesial Vision of John Chrysostom.” *Touchstone* (Spring 1993). <http://www.touchstonemag.com/archives/article.php?id=06-02-007-f>
- Cooper-White, Pamela.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es Respons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 Doehring, Carrie.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 Postmodern Approach*. 오오현 · 정호영 공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근대적 접근법』. 서울: 학지사. 2012.
- Farley, Edward. “Interpreting Situations: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Practical Theology.” In *Formation and Reflection: The Promise of Practical Theology*, eds. L. S. Mudge & J. N. Poling.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2009.
- Hedges-Goettl, Len. *Sexual Abuse: Pastoral Respons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1.
- Jordan, Mark D. *The Ethics of Sex: New Dimensions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002.
- Miles, Ribekah L.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Park, Andrew S.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TN.: Abingdon. 1993.

Peterson, Eugene.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http://cafe.daum.net/bgtopia/73AA>.

【 Abstract 】

Resources of Theological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Pastor's Sexual Abuse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Pastor's sexual abuse brings about disastrous results in every way. It is a betrayal against the One who is calling him to his service and the congregation to which he is called for ministry. It is also a spiritual assault against the church member(s) by violating his or her dignity and autonomy of sexuality. Rather than healing the victim or accusing the perpetrator aftermath, therefore, the prevention of pastor's sexual abuse in advance is much more valuable and economical in saving the church's energy. First of all, pastors and seminarians must learn that sexuality is part of their life and ministry. The stronger their obsessions against sexuality for the sake of "sacred" ministry, the more chances they will get to act out the suppressed desires. Second, pastoral authority and power must be subject to their self-inspection in order to prevent abuse. The acknowledgement of pastoral power helps discern its dynamics for or against the parishioner and protect her from the blind patriarchal power in the church. Third, pastoral leaders must monitor the countertransference that is unconsciously and deceptively happening within themselves. Last but not least, a new theological focus on the victim will result in revealing the truth and realizing justice.

Key words: pastor's sexuality, sexual abuse, power, theological education, victim